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 동물형상의 유기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노 준 진

# 동물형상의 유기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노 준 진

# 인 준 서

노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2007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논문 개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이란 더 이상 극복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적(敵)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가 아껴주고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요, 인류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

미술 작품의 재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자연과 인류와의 조화라는 현대적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써 본인의 작품 재료로 자연속의 돌(石)을 선택하였다.

자연속의 돌은 단지 돌 그 자체로서 존재할 뿐이지만, 인간에게 석재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건축업자에게 튼튼한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며, 지질학자에게는 지층의 연대와 생성원리를 분석하는 과학적 분석도구가 되기도 한다. 본인에게는 돌이란 것이 예술적 심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멋진 재료로서 다가왔다. 길거리에, 산속에, 바닷가에 흔하디 흔한 돌이지만 나의 의식과 손을 거친 돌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으로 태어날 때 것에 작은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은 자연석으로써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흙으로부터 자연석이 되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나아가 한 예술인의 손을 거치면서 하나의 유의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본인은 자연석에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자연석의 형태에 따라 동물의 형상도 다양하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달팽이나 거북이의 등껍데기 대신 자연이라는 돌의 형상을 함으로써 자연의 한 일부분이 되어 도시가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자하는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하마의 형상으로써는 물에 있든, 땅에 있든 보는 이의 눈에는 느릿하게 헤엄치는 풍경이자, 공간의 느낌과 땅

에 박혀있는 것이라 해도 그 모습은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임을 갖고 착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물에 젖은 오석의 빛깔이 주는 느낌을, 바다에 깔려있는 하마, 수달, 그리고 달팽이에게서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이로써 자연석이 생명력을 가짐이 상상 속에서와 같은 밝은 파라다이스만이 아니라, 생물, 나아가 인간이 지닌 삶의 무게, 존재감 등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앞으로 전개할 본 논문에서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석재가 우리들의 미술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본 후, 본인에게 있어 미술재료로써, 또한 표현의 수단으로써 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생각에 바탕을 두고 각 개별 작품별로 이론적 배경 및 표현방법을 설명하고 본인 작품의 당위성과 앞으로 작품전개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동물형상의 유기적 표현」에 관해 연구, 분석한 결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작품의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밝혔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의 배경을 약술하고 조형적 표현 방법에 있어 형태적 측면과 재료적 측면과 작품설명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약술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	---

II. 본 론 .....	4
---------------	---

1. 작품의 형성 배경 .....	4
--------------------	---

2. 조형적 표현 방법 .....	6
--------------------	---

1) 재료적 측면 .....	6
-----------------	---

2) 형태적 측면 .....	8
-----------------	---

3. 작품 전개 및 분석 .....	9
---------------------	---

III. 결 론 .....	30
----------------	----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숨-하마 .....	12
【작품 2】 숨-곰 .....	14
【작품 3】 숨-달팽이 .....	16
【작품 4】 숨-거북이 .....	18
【작품 5】 숨-거북이 .....	20
【작품 6】 숨-고슴도치 .....	22
【작품 7】 숨-수달 .....	24
【작품 8】 숨-거북이 .....	26

# I. 서 론

인류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 및 학설이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문명은 자연과의 싸움, 대립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더 낡은 사냥을 위해, 또한 더 많은 농작물 수확을 위해 도구를 발명하고, 수학을 발명하였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다스리고자, 나일강이 해마다 가져오는 재해를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을 인간의 극복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어 질 수 없다.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결국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었고, 인류를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게 만들었다.

인류가 인류의 영원한 고향인 자연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오늘날의 인간사회는 그로인해 온갖 위기상황에 노출되고야 말았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인간화, 물질주의 등은 결국 자연과 인간과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치유방법은 인류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즉 자연에의 귀의와 합일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며 어머니이다. 병든 자나 상처 입은 자나 실의에 빠진 자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휴양을 할 때 그 어떤 곳에서 보다도 치유 효과가 빠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먼 옛날부터 지리를 깨우치려는 수많은 구도자들은 속인의 세상을 떠나 숲이나 산과 같은 자연 속에 은거 하며 구도하여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힘 때문이다. 치유하고 보호하며 보다 높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자연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자<sup>1)</sup>나 장자<sup>2)</sup>는 자연에 합치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자세로 여겼다. 그 옛날에 동양의 현인(賢人)들은 자연에 반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들을 천지의 '도(道)' 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문명사회가 심각한 문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도 자연을 망각하고 자연을 배반하는 도정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모든 동·식물 하물며 하찮은 '나' 조차 이런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인류의 자연으로의 귀의를 큰 뜻으로 삼아 그 작은 실천으로 조각 작품에 자연이라는 모티브로 그 자연이 가지는 내밀한 표정을 구현하고자 산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여러 형태의 바위나 돌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돌의 형태에 따라 자연석의 한 부분을 조각하여 그 돌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존재의 형상을 찾았다.

자연이란 인공적인 도움 없이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산, 강, 바다, 초목, 동물, 비, 바람처럼 저절로 생성하고 소멸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있는 바위나 돌들은 풍화작용, 즉 그 생성과 소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었다. 생명체 역시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흙이 되고, 흙에서 유기물이 모두 빠져버린 채 또다시 역경의 시간이 흐르면 순수한 무기물인 바위와 돌이 된다. 본인은 예술가로서 예술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흙으로부터 자연석이 되기까지의 세월을

---

1) 노자(老子) : 중국 고대의 철학자, 도가(道家)의 창시자.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은퇴할 것을 결심한 후 서방(西方)으로 떠났다. 그 도중 관문지기의 요청으로 상하 2편의 책을 써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노자》라고 하며 《도덕경(道德經)》이라고도 하는데, 도가사상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2) 장자(莊子) : 중국 고대의 사상가,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도가(道家)의 대표자.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라고 보았다.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므로 무위(無爲)하고, 스스로 자기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이므로 자연(自然)하다.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다.

상상하여 자연석에 본인의 연상된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연석에 본인의 잠재되어있는 형상을 집어넣는 작가적 표현방법, 즉 여러 가지 조각기법, 염색기법 등을 이용하여 작가의 내면의 심상세계를 동물로써 이미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의 배경

인류 최초의 동굴벽화인 알타미라(Altamira)동굴에는 많은 짐승들이 묘사되어 있다. 문자도 채 확립되지 아니한 시기에 초기 인류는 왜 동굴에 짐승들을 묘사해 놓았을까. 동굴 벽에 그려진 짐승은 당시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즉 사냥에서의 목표물, 자신이 정복해야할 대상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석기 인류에게 짐승은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약속하는 징표인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의 한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고대 시대의 미술은 필연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직접적인 행동양식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구석기 시대의 미술은 세계가 곧 현실이었으므로 현실을 잘 표현하기 위한 대상의 충실한 묘사가 철저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석기 시대의 미술은 자연주의 경향을 뚜렷하게 내포하며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석기 시대의 미술은 기하학적 장식요소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구석기 시대의 그것과는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하려는 자연주의적 경향 대신에 다양화, 이상화된 표현의 형식주의가 등장하였다. 이에 감각적 인상의 직접성 대신에 개념의 고정불변성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표현은 추상화·상징화되어 상형문자와 가깝게 기호화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법과 장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화의 양식을 쌓아왔다.

구석기 시대의 자연주의와 신석기시대 미술의 한 특징을 이루는 추상적 관념

성과 상상력의 작용은 그 이후 모든 시대에 있어서 예술의 양식을 방향 짓는 중요한 근본요소가 되었다.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동물들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로 표상되고 어떤 영능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어 표현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실제의 동물에다 자신만의 상상력을 첨가하거나, 여러 동물들의 부분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동물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동양의 용이나 봉황, 서양의 유니콘 등이 그것이다.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의 모습은 구석기 시대의 미술처럼 사실적으로 충실하게 그 형상을 묘사한 경우보다는 개개의 동물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만을 차용함과 동시에 그 본질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추상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연 형체에서 출발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부의 것을 표현하여 추상적인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져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려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프란츠 마르크(Franz Marc)의 동물들은 의식이나 꿈 뒤에 숨어 있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사물의 배후에서 숨 쉬고 있는 지고한 생명을 찾아내어 그 실체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도 동물처럼 자연의 일부분임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서 벗어나고 더 빠른 것을 향한 속도의 최면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깃들인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연 속의 동물을 자신만의 이미지 속에서 표현해 내려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물이 아닌 그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진 동물인 경우가 많다.

## 2. 조형적 표현방법

### 1) 재료적 측면

선사시대 인류는 자연을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이로부터 초기의 자연물 숭배사상이 발전되어 신앙 사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질서”를 터득하게 되었다.<sup>3)</sup>

고대사회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신비에 가깝도록 종교적으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조형 활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 대상을 돌(stone, 石)로만 한정시켜 본다면, 선사시대에는 거석(巨石)에 대한 숭배가 세계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그 유물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나 영국의 스톤헨지로 대표되는 거석문화가 그것이다. 또한 이집트의 스피크스, 피라미드 역시 거석문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거석 숭배는 아마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거석 구조물들은 천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인 가공을 하였으며 돌 자체에 대한 숭배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영적 존재의 영원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의 의인화는 무의식 세계의 어떤 분명한 내용을 돌에 투사한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초자연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술적 성격과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연의 법칙을 미적 표현 대상으로 조형 활동에 이용하였으며, 자아를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였다. 예술에 있어서 자연은 끊임없는 조형 활동의 소재가 되어 왔으며 자연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잠재적인 조형의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자연의 법칙성을 관찰

---

3) 민정현(1998), <숲과 들과 물의 문화>, 예경, p.38.

함으로써 조형사고의 방법을 얻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인간정신의 시원적이 표현본능은 형태와 소재에 의탁하여 나타낸다.

돌은 모든 예술분야에서 그 소재로써 선택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돌이 자연의 무생물적 구조물에 그침이 아니라 확대된 자연물로서 본질적인 미와 더불어 예술 활동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차원의 지고한 미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돌은 그 자체로는 생명 없는 자연의 무기물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돌이 예술가의 손을 거치며 그의 상상력과 표현력이라는 레시피를 통해 무한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형태적 측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져 왔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위치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자만심은 현대사회에 와서 극도의 자연파괴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인간 스스로의 인간성 상실, 즉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연이 극복대상이 아니라 공존하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각성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시각을 인간에 대한 대립간이 아닌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관심, 나아가 자연의 숭고함에 대한 존경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이는 미술에도 영향을 미쳐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게 하였다.

이를 형태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수평, 수직, 날카로움 등의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에서 쉽게 느껴지는 느낌인데 반해 곡선으로 대표되는 자연·사물을 접목, 유추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은 유기적인 형상으로 생물의 유기적인

성장에 자유로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듯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존의 생태계 파괴 및 자연 질서 훼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아닌 자연속의 인간이라는 통합적인 자연의 생동하는 특성을 추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본인에게 표현적으로 자연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동적 과정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자연의 생명감을 표현하고 그 살아있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활동을 지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술작품 역시 작가의 조형미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다. 조형(造形)이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다.<sup>4)</sup> 또는,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의 말처럼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결과로 나타내는 현상으로 인간의 경험과 상징의 표상인 것이다.

### 3. 작품전개 및 분석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예술적 소재를 제공하여 왔으며 인간은 자연을 끊임 없이 탐구하고 관조하면서 체험한 미를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조형의지와 미의식에 따라 자연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였는데 흙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재질의 무한한 조형적 물성을 탐구하여 고대로부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돌을 조형화함에 있어서 자연과 예술 속에 내포된 돌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여 주관적 심상의 재해석을 통한 표현방법의 선택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의미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작가의 심상세계를 이

---

4)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1991, p85

미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형상과 생각의 관계는 문화를 짜는 중요한 갈래의 하나이다. 그로부터 예술이 나뉘지고, 예술가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예술가는 눈에 보이도록 형태를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다른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 예술가는 연상력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라 할 만하다. 거꾸로 보면 어떤 예술가는 연상력의 풍부한 자극을 피하기 어렵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에 앞서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게 연상이라면, 연상한다는 것은 예술의 기초적인 단계이자 표현의 첫 걸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따금씩 이야기의 열개를 짜는 데에 필요한 분야로서, 손꼽는 현상학<sup>5)</sup>적인 생각들을 따질 때 생긴다.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 사물과 형상들에 부딪고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모양과 생각, 그리고 머릿속에 없었지만 밖으로부터 들어와 생기는 새로운 모양과 생각들은 주로 현상학의 투사에서 다루는 방식인데, 이것은 일종의 연상이라고 부를만 하다. 여기서 밖으로부터 침투하여 생기는 모양이나 생각들조차, 주체(사람)의 경험을 갖대로 하여 만들었음을 문제 삼는다.

어떠한 대상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각자마다 개개의 표현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은 대상에 대한 본인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상상력을 덧붙여 이

---

5) 현상학 [現象學, phenomenology, Ph nomenologie] : 형상적 환원(形相的 還元, eidetische Reduktion)에 의해 자연적 사실을 배제하고, 다시 선험적 환원(先驗的 還元, transzendente Reduktion)에 의해 초월적 본질을 배제한 뒤에 남는 소위 현상학적 잔여(現象學的 殘餘, ph nomenologische Residuum)로서의 순수한 의식현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학문방법을 말한다. 당초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J. H. Lambert는 본체의 본질을 연구하는 본체학과 구별하여, 본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현상학이라 하였다. 이후 E. Husserl은 관념론의 독단적 전체(獨斷的 專制)와 사변적 구성(思辨的 構成)을 반대, '사실 그 자체'를 표방하면서 모든 학문의 기초학(基礎學, Grunfwissenschaft)이라 칭하는 오늘날의 현상학 체계를 정립하였다. 형상적 환원은 사실적인 대상을 초월적 대상으로 보는 자연적 태도(nat rliche Einstellung)를 떠나서 사실의 본질을 그 직접성·구체성에서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본질직관(Ideation)이라고 한다. 선험적 환원은 본질을 직관하는 형상적 태도에서 다시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여, 초월적인 본질을 의식에 내재하는 본질로 보는 것을 말한다.

를 내면세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상상력에 자극을 주어 내면세계 속의 여러 동물들을 떠오르게 하여 동물들의 형태를 화면에 재구성하여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동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느 특정 동물이 떠오른다 하여도 그 동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참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만의 기억에 의존한 연상되어지는 이미지를 기초로 두고 작업을 하였다.

예술가 마다 대상을 달리 대하는 심상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현실 상황에 얻어진 경험과 주관적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상이란 마음의 떠오르는 감각적 성질을 가진 상(像)으로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심상들이 있지만, 각각 개념이 다르고 한 대상에서 나오는 심상이 누구에게나 같은 것은 아니다. 심상은 의식, 진실, 개념, 이미지 등을 포함하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억 구조 속에는 대상에 대해 사진과 같은 구체적 심상, 구조만을 통한 심상, 구조 중 대표적인 부분만을 묘사하는 심상 등, 여러 수준의 심상들이 있다. 이러한 심상들은 비록 그 윤곽, 표면 또는 색상이 애매 하지만, 그 상을 일으킨 힘의 형태를 매우 정밀하게 구체화 할 수 있다.<sup>6)</sup>

심상은 창조활동을 통해 표출되며 하나의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심상언어를 끄집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사람의 잠재된 생각의 형태 즉,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이나 좋아 했던 동물, 장난감 등 여러 가지 형상들을 통해 본인의 형상기억이라는 기본적인 토대로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조형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이는 이미지가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성과 결합하고 변형되어 기억되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함이다.

본인의 작품은 3종류로 나뉘는데 【작품 1, 2, 3】은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

---

6) 루돌프 아르 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譯,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라 한 부분을 조각하여 내면동물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석 안에 있는 생명을 본인이 어렸을 때 보아왔던 잠재된 형상들을 표현하였다. 【작품 4, 5, 6】은 【작품 1, 2, 3】과 같은 표현방법인데 작업 방법에 있어 동물의 형태에 따라 임의로 돌을 가공하여 염색을 통해 자연석 처리를 하였다.

【작품 7, 8】은 자연석을 반으로 쪼개어서 음각과 양각으로 표현하였고, 본인의 잠재된 생각을 화석으로 발굴된 것처럼 동물형상을 표현하였다.

【작품 1】 숨-하마



【작품 1】 숨 - 하마

**【작품 1】 숨 - 하마**

크 기 : 가변 크기

재 료 : 오석, 청오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하마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골라 하마의 형태를 다듬는다.
- 3) 정으로 조각 후 사포로 연마하여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마무리한다.

【작품 1】 은 하마의 무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땅에 박혀있는 하마의 모습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모습을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임을 갖는 착시 효과로 표현하였고, 동시대를 살아가며 숨을 쉬는 인간들을 그들의 무리에 빗대어 유기적인 형상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에 위치한 가공된 자연석은 인간과 인간의 삶이 비취진 모습을 두 마리의 하마가 입을 벌리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1】 은 바다표면을 수면으로 가정 하에 표현된 동물의 형상들을 삼각형 구도로 배치하고 중앙의 두 하마의 형상을 긴장성을 갖기 위해 클로즈업 시켜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감과 긴장감을 함께 느끼도록 재현, 설치하였다.

【작품 2】 숨 - 곰



【작품 2】 숨 - 곰

## 【작품 2】 숨 - 곰

크 기 : 950×300×550mm

재 료 : 고흥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곰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골라 곰의 머리의 형태를 다듬는다.
- 3) 정으로 조각한 후 사포로 연마하여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마무리한다.

【작품 2】는 석산에서의 작업 활동 속에서 우연한 즉흥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얻어진 본인의 성과물이라 볼 수 있다.

도심을 벗어나 석산에서의 경험은 본인에게 본인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 이상의 많은 것들을 선사하였다. 작업 속에서 본인의 존재가 마치 굴속의 곰처럼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인간형으로 느껴졌다. 본인의 심상을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연석에 아치 형태로 중간에 공간감을 주었고, 사포로 연마를 하여 곰의 머리 부분과 다른 질감을 줌으로써 동굴 안에 있는 곰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였다.

【작품 3】 숨 - 달팽이



【작품 3】 숨 - 달팽이

### 【작품 3】 숨 - 달팽이

크 기 : 550×250×500mm

재 료 : 오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달팽이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골라 달팽이의 형태를 다듬는다.
- 3) 다듬은 형태를 사포로 연마하여 중요한 부분에 정으로 조각 한 후 포인트를 주어서 마무리한다.

【작품 3】은 인간의 삶을 달팽이로 빗대어 표현하므로 삶의 지표에 힘든 여행과 미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가는 달팽이의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마치 인간이 사회든 개인적이든 간에 삶의 무게를 형상화 한 것이다.

【작품 4】 숨-거북이



【작품 4】 숨 - 거북이

**【작품 4】 숨 - 거북이**

크 기 : 700×200×500mm

재 료 : 청오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거북이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거북이의 형태를 만들고 자연석 부분의 형태를 다듬는다.
- 3) 자연석 부분은 버너구이를 한 후 염화철이라는 안료로 염색처리를 한다.
- 4) 다듬은 형태를 사포로 연마하고 정으로 조각하여 거북이를 마무리한다.

【작품 4】 는 거북이 네 마리가 서로 어울려 노는 형상으로써, 아치 형태로 공간감을 주었고 상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문을 형상화한 형태이고 거북이는 장수의 동물이다. 이 문을 지나감 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5】 숨 - 거북이



【작품 5】 숨 - 거북이

**【작품 5】 숲 - 거북이**

크 기 : 300×300×200mm

재 료 : 오석, 대리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거북이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거북이의 형태를 만들고 자연석 부분의 형태를 다듬는다.
- 3) 자연석 부분은 버너구이를 한 후 염화철 이라는 안료를 사용하여 염색처리를 한다.
- 4) 깨진 부분을 대리석으로 끼워 넣고 거북이의 형태를 사포로 연마하고 정교로 조각하여 거북이를 마무리한다.

**【작품 5】 거북이의 형상을 조형화한 작품으로써 무거운 등껍질을 평생 지고 살아가는 거북이에서 각박한 현대사회에 찌든 현대인을 표현하였고,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수함으로 회귀를 갈망하는 염원 속에서 더욱 편안한 휴식과 안식을 주는 자연으로 되돌아가 병든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인을 조형화 한 작품이다.**

【작품 6】 숨 - 고슴도치



【작품 6】 숨 - 고슴도치

**【작품 6】 숲 - 고슴도치**

크 기 : 450×300×250 (mm)

재 료 : 오석, 조명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자연석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고슴도치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자연석의 형태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만든다.
- 2) 돌의 한 부분을 고슴도치의 형태를 만들고 자연석 부분의 형태를 다듬고 드릴로 타공 한다.
- 3) 자연석 표면부분을 버너구이 하고 염화철 이라는 안료를 사용하여 염색처리를 하고 내부 속을 파낸다.
- 4) 고슴도치의 형태를 정 터치로 마무리하고 포인트 부분을 고운사포로 표면을 연마하여 광을 내고 조형물 내부에 조명을 설치 마무리한다.

**【작품 6】** 은 자연석의 일부분을 조각하여 고슴도치를 형상화 한 후 내부 속에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고슴도치의 가시는 주변부로부터의 보호 본능에 대해 대처하듯 현대인의 불안한 내적심상 및 외형적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숨 - 수달



【작품 7】 숨 - 수달

**【작품 7】 숨 - 수달**

크 기 : 550×320×300mm

재 료 : 오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수달에 대한 생존 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될 밑그림의 바탕으로 흙을 이용하여 모형을 가제작한 후 본인의 심상과 규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돌을 구한다.
- 2) 돌을 이등분하여 음각과 양각을 각각 조각한다.
- 3) 음각의 수달과 양각의 수달을 정 조각으로 마무리 한 후 사포로 문지른다.
- 4) 물결모양을 사포로 연마하고 물결 부분에 에어 툴로 물고기 문양을 넣고 마무리한다.

【작품 7】은 수달의 형상을 조형화한 작품으로 수달이 물에서 노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자연석을 이등분하여 음각과 양각으로 조각함으로써 상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생명체인 수달과 자연석과의 수 억년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를 미술적 표현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작품 8】 숨 - 거북이



【작품 8】 숨 - 거북이

**【작품 8】 숨 - 거북이**

크 기 : 700×400×350mm

재 료 : 오석

제작년도 : 2006년

제작방법 :

- 1) 거북이에 대한 생존본능과 습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 될 밑그림을 바탕으로 흙을 이용하여 모형을 가제작한 후 본인의 심상과 규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돌을 구한다.
- 2) 돌을 이등분하여 음각과 양각을 각각 조각한다.
- 3) 음각의 거북이와 양각의 거북이를 정 터치로 마무리 하고 배 부분을 사포로 연마하고 눈과 발톱을 포인트를 주어 마무리한다.

【작품 8】 은 거북이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작품 7】 과 같은 형식으로 수 억 년의 시간차를 미술적 표현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의 대립각적 패러다임은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자연은 무언(無言)의 정연한 질서를 가진 인간 본래의 터전으로써 항상 인간과 가까이 있으며 인간은 그 자연을 통해 생명체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자연의 일부로써의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이 공감의 되는 의미의 교합이 이루어 질 때에 예술은 발현된다.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보다 깊은 믿음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직접 경험에 나타나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연이라는 그림자를 떠날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자연은 인간 본연의 감성과 감각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예술의 터전으로 인식되었으며, 작업과정을 통해 형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조형성의 문제와 본인의 내부로부터 발견되는 이미지의 조형의식과 문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으로의 회귀(回歸)를 갈망하며, 그 근원점을 자연적인 모태에서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원초적 윤희의 본능이 인류가 인간성 상실이라는 냉정한 시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수한 표현 욕구를 추구하며, 존재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내면의 본능적인 심리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본인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상징들과 내적욕구의 형상적 이미지를 드러냄에 있어서, 다면성을 띤 인간의 심리와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 표류하는 현대인들의 내적욕구를 동물적인 형상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를 조형적 원리로 인식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조형관과 표현방법에 따라 예술분야에 표현되어진 돌의 주관적인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외적자연에서 얻은 직접적인 인상을 잠재된 연상력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변형시켜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자아 속에 내재된 욕구를 원초적 감정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으로 보았다. 동물의 형상을 의인화 시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해보면서 내면적 성격의 과정을 표현하거나 갑작스럽게 연상된 동물형상을 자연석 속에 간직하고픈 '내면적 자연'에서 생겨난 표현 형식인 것이다. 자연석을 이등분해 그 안에 있는 형상을 음각과 양각을 표현함으로써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자연석을 통해 재해석 해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제작과정을 통하여 예술 창작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무한한 조형적 요소의 잠재력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자연과 생명체, 나아가 인간과의 끊임없는 상호유기적인 관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인은 앞으로 유기적 형태 속에서 한정된 형태가 아닌 유동성을 지니면서 발전한다는데 초점을 두어 창의적인 조형세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1991
- 조요한 「예술 철학」, 경문사, 1973
- 백준기 「자연과 예술」 전주교대 논문 제11집 , 1980
- 민병현 <숲과 들과 물의 문화>, 예경, 1998
- 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譯, 을유 문화사 1991
- David A. Lauer 「조형의 원리」, 이대일 譯, 열화당, 1979
-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譯, 열화당, 2000
- Rene Hughes 「예술과 영혼」, 김화영 譯, 열화당, 1979
- F.W.J Schelling 「조형 미술과 자연의 관계」, 심철민 譯 책세상, 2002
- 월간미술 「세계 미술용어 사전」, 서울: 중앙일보 출판사, 1996

# ABSTRACT

## A Study on Organic Expression of Animal Figures

Noh jun jin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nature is no longer an enemy that we have to overcome and conquer in the 21st century. Rather, it is what the human race have to protect and love as a space for their own life.

There are many kinds of materials for arts. Among them I selected stone from the nature as my own works in order to practice harmonization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s, which is a modern paradigm.

Stone exists as it is in the nature. But, when it comes to human beings, stone becomes to have several meanings and values for different people. It becomes a good toy for children in the ground; nice material for a constructor to build a house; and an object for a geologist to analyze the history and formation of geological strata. To me, stone is splendid material to express artistic images. It is common in the road, in the river bed and on the shore. However, it becomes a work of art that expresses something in my hand. That makes me delighted.

I have thought over what to express with stone. Stone is a synonym of

lifeless things, which is pure inorganic substance without any additional organic matter. However, I wanted to show that it can have a significant life as it is processed by human beings and further an artist.

Also stone is a symbol of weights. Even without mentioning huge stones of a pyramid, stone is a barometer of heaviness. So, I tried to express the image of stone as it is.

Consequently, I tried to refresh images of stone such as heaviness and massiveness while infusing a life to the inorganic matter. In my works, stone has animal figures; in particular, a snail with a heavy shell on the back, a turtle supporting a hard shell, and a hippopotamus as a symbol of heaviness.

Thereby the possession of life by the inorganic substance expresses not only a bright paradise in our imagination but also weights and existence of living things, especially human beings.

Finally, I review the roles and meanings of stone in the art history since the history of human beings began, and analyze the meaning of stone as a means of expression and material for arts in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ideas, I explain theoretical background and expression methods by each individual work and establish the necessity of my works and a concept of work development.

The study is a result of analysis about 「Animal Figure of Stone Construction」 consisting of three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clarifies the study purposes and methods of the works.

Chapter 2 Main Subject provides a brief background of the works and

describes the aspects of formation and materials in formative expressions and explanations about the works.

Chapter 3 Conclusion summarizes the meeting of my works and suggests a future direction.